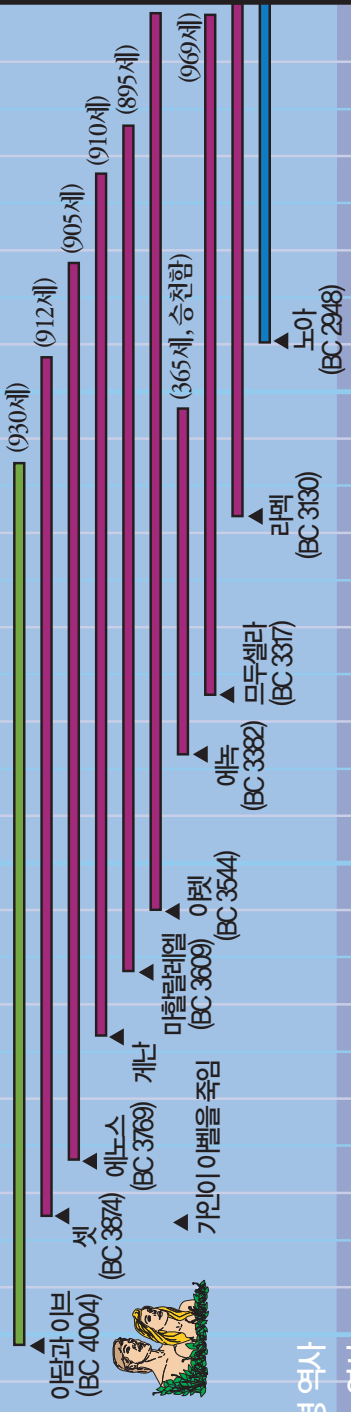


성경의 연대 1

(대략적인 연대임)



성경 역사
 세속 역사
 (없음)

◎ 창조 시간

- 지금과 동일한 24시간 하루의 6일 창조
-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
- 첫째 날: 하늘과 지구, 빛과 어둠
- 둘째 날: 공창
- 셋째 날: 땅과 바다, 과일 나무, 채소
- 넷째 날: 해와 달
- 다섯째 날: 물고기, 고래, 새
- 여섯째 날: 가축, 짐승, 사람

◎ 창조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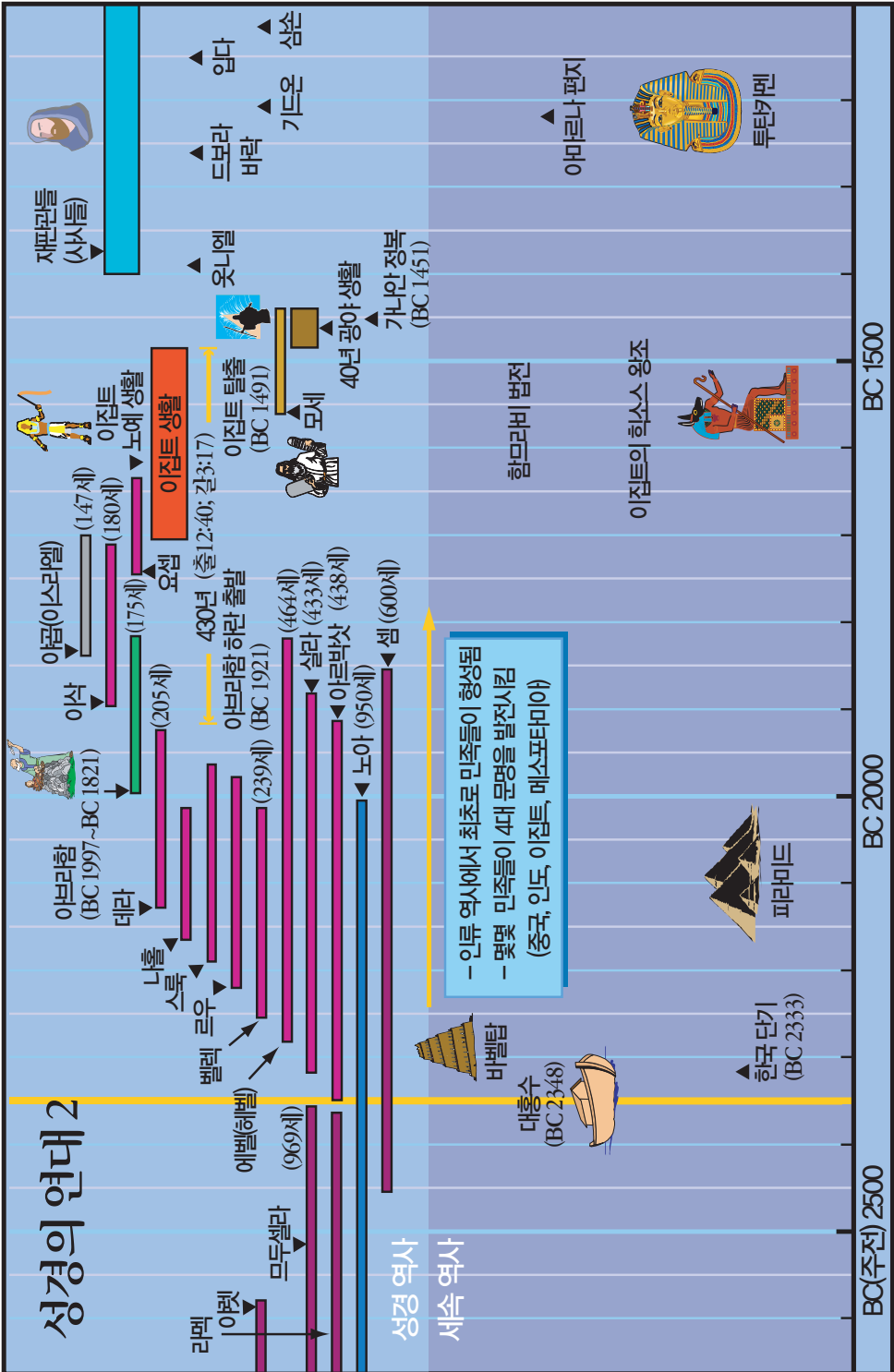
- 어셔(J. Ussher): BC 4004년
- 존즈(F. Jones): BC 4004년
- 벌링거(E. W. Bullinger): BC 4004년
- 클라센(F. Klassen): BC 3975년
- 모리스(H. Morris): BC 4000년경
- 무어맨(J. Mooreman): BC 4000년경

BC(주전) 4000

BC 3500

BC 3000

성경의 연대 2



성경의 연대 3

재판관(사사)들



사울



다윗

솔로몬

다윗 출생 (BC 1085)



왕들

이스라엘 왕국

분단 왕국

유다 왕국

아시리아 포로생활 (BC 721)

비빌론 포로생활 (BC 606-536)

성전 재건축 시작 (BC 535)

밀라기 (BC 432)

느헤미야 (BC 445)

(다니엘의 700레 시작)

에스라 (BC 457)

스룹바벨과 포로들 귀환 (BC 536)

에레미야 대언 시작 (BC 628)

에스겔 대언 시작 (BC 593)

BC 445 (단 9:25-26)

다니엘의 690레 (유대인 탈력으로 483년)

AD 30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성전 침략 (BC 171)

미카비 반란 (BC 168)

율리우스 카이사르

요한 히르카누스 (미카비 후손)

AD 70

에루살렘 멸망 (AD 70)

네로 (AD 54)

헤롯 대왕

로마

프톨레마이오스

AD 200

성경 역사

세속 역사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 (BC 1012)

엘리아 승천 (BC 887)

디글랏벨레셀

사사의 침공 (BC 971)

니부갓네살 유다 침공 (BC 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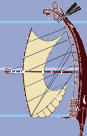
아닥사스다 (BC 464)

그레스 칙령 (BC 536)

일렉산더 대왕 (BC 356-323)

로마

AD 200



페니키아 사람들



올림픽 게임

AD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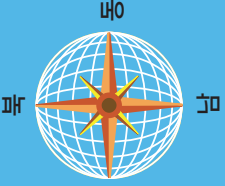
BC(주전) 1000

BC 500

BC

AD(주후) AD 200

재판관(사사)들의 도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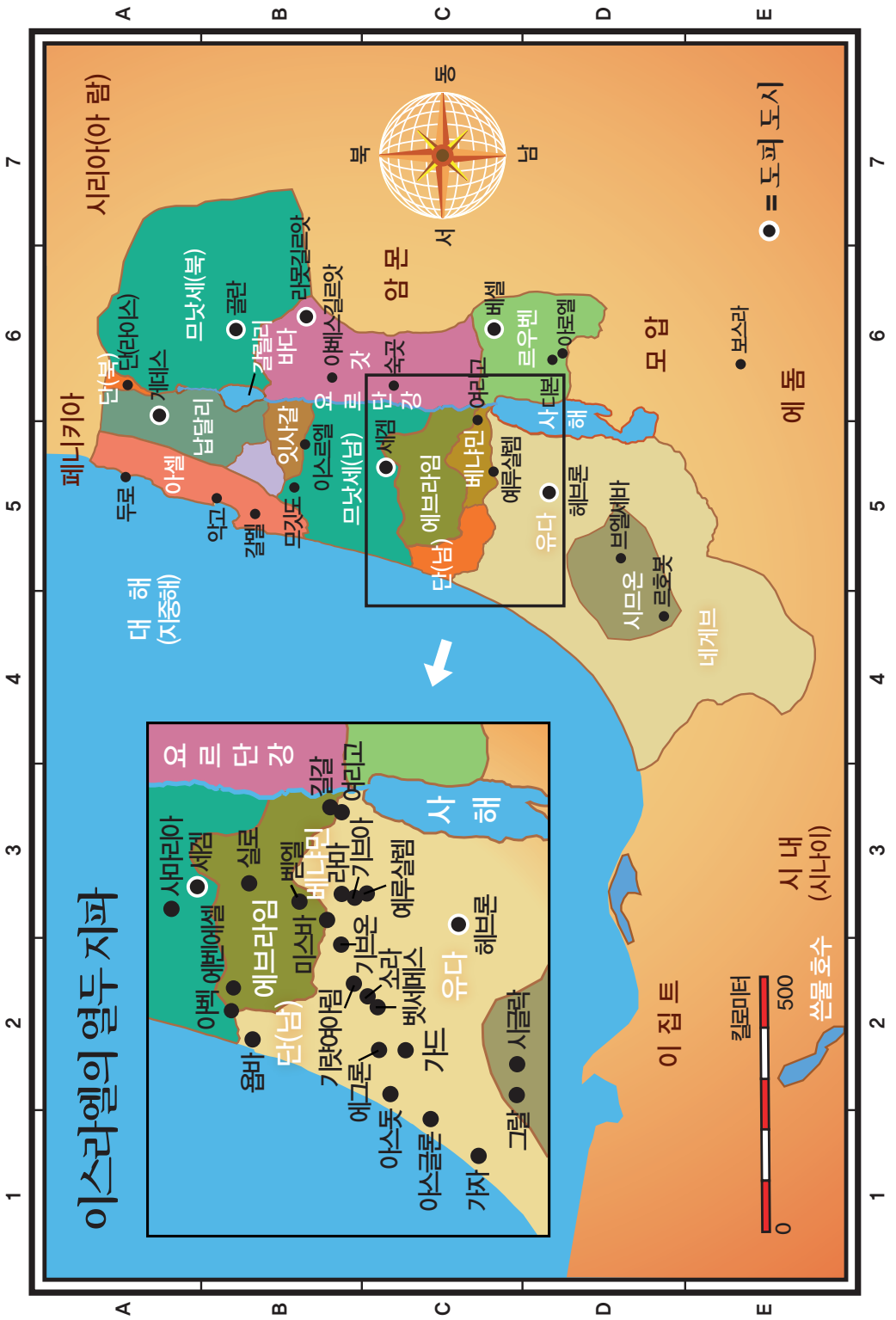


대 해 (지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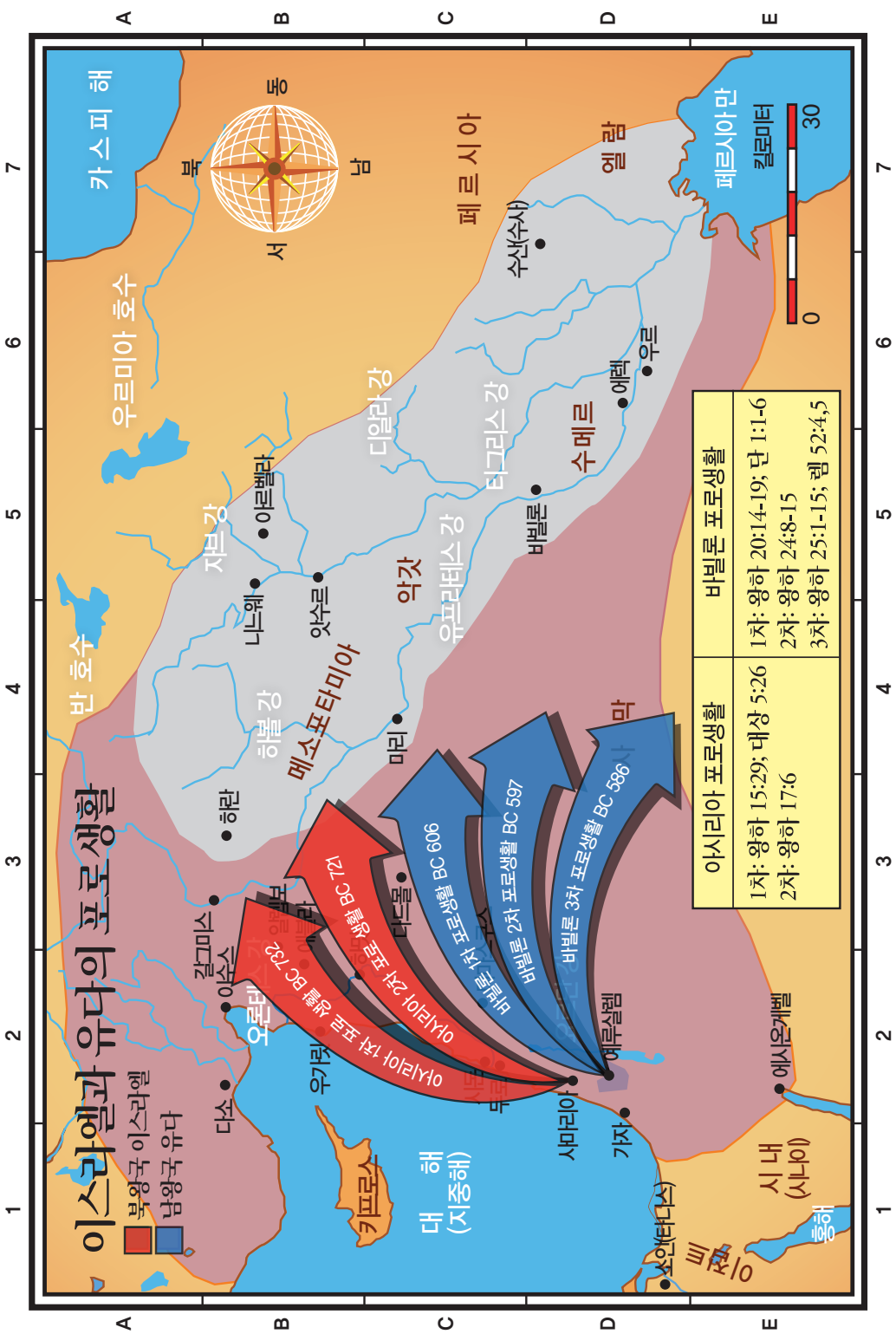


- 가몬(삿10:5)
- 가저(삿1:18; 6:4; 16:1)
- 기랏세헬(삿1:11)
- 다불 산(삿4:6)
- 돔(삿11:3)
- 딤낫(삿14:1)
- 라마(삿4:5; 19:13)
- 레히(삿15:9)
- 모레 산(삿7:1)
- 미니스(삿11:33)
- 미스바(삿10:17)
- 베들레헬(삿12:8)
- 벤헬(삿1:22; 4:5)
- 비라돈(삿12:13)
- 사밀(삿10:1)
- 소라(삿13:2)
- 숙곳(삿8:5)
- 실로(삿18:31; 21:12)
- 아로엘(삿11:26, 33)
- 아벨므홀라(삿7:22)
- 아이알론(삿1:35; 12:12)
- 에벤에셀(삼상3:1)
- 오므라(삿6:11)
- 헤브론(삿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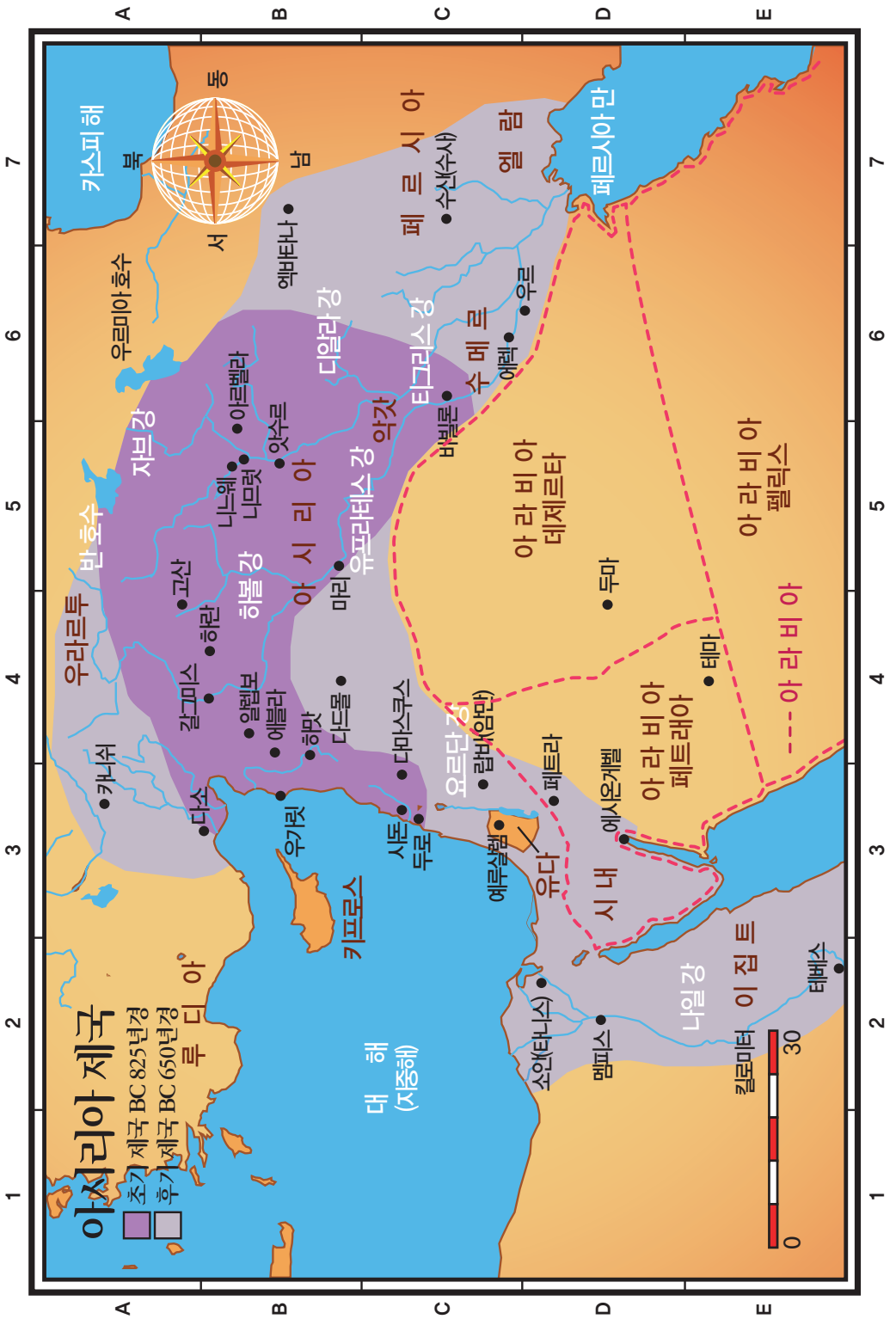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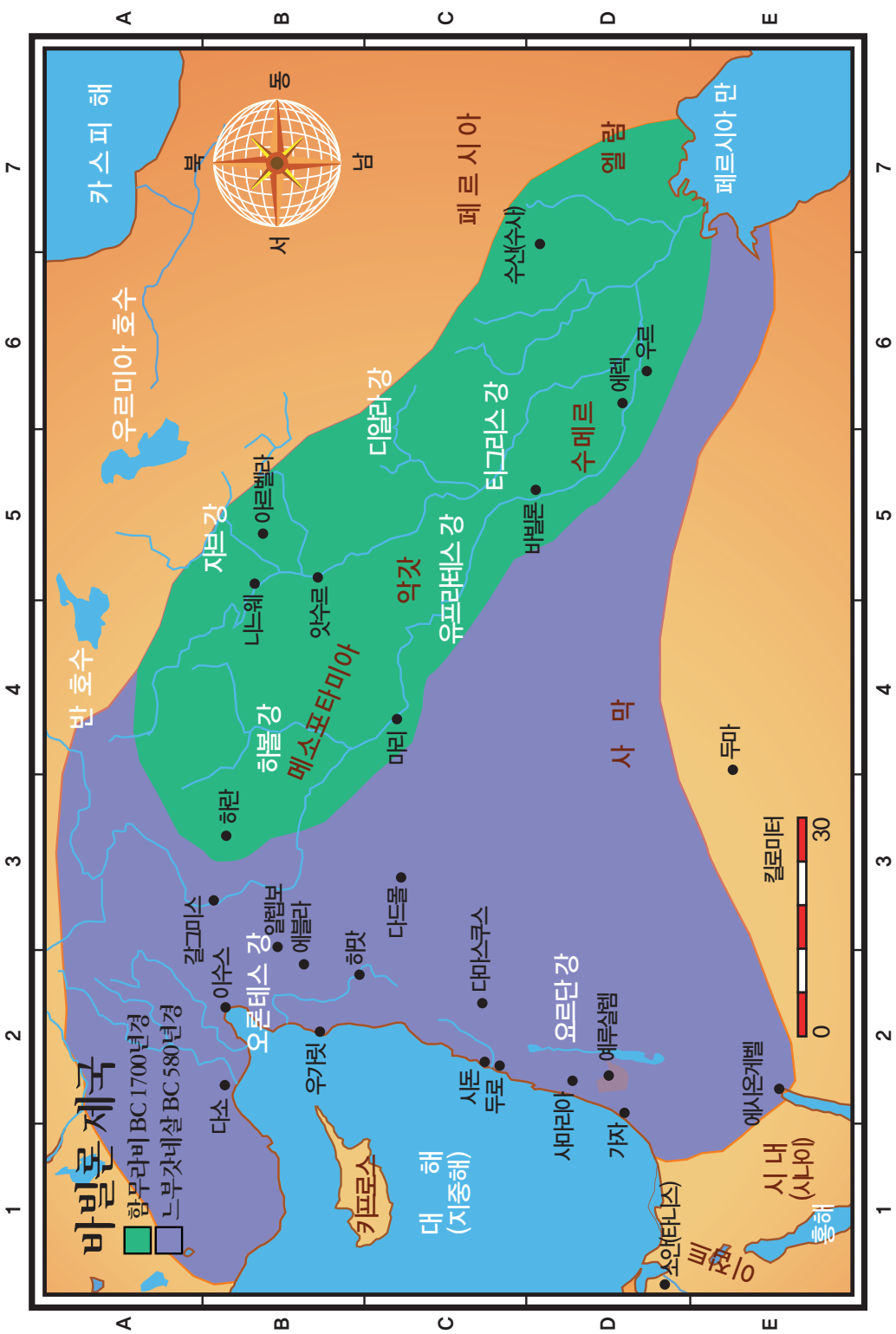
8. 이스라엘의 영토 지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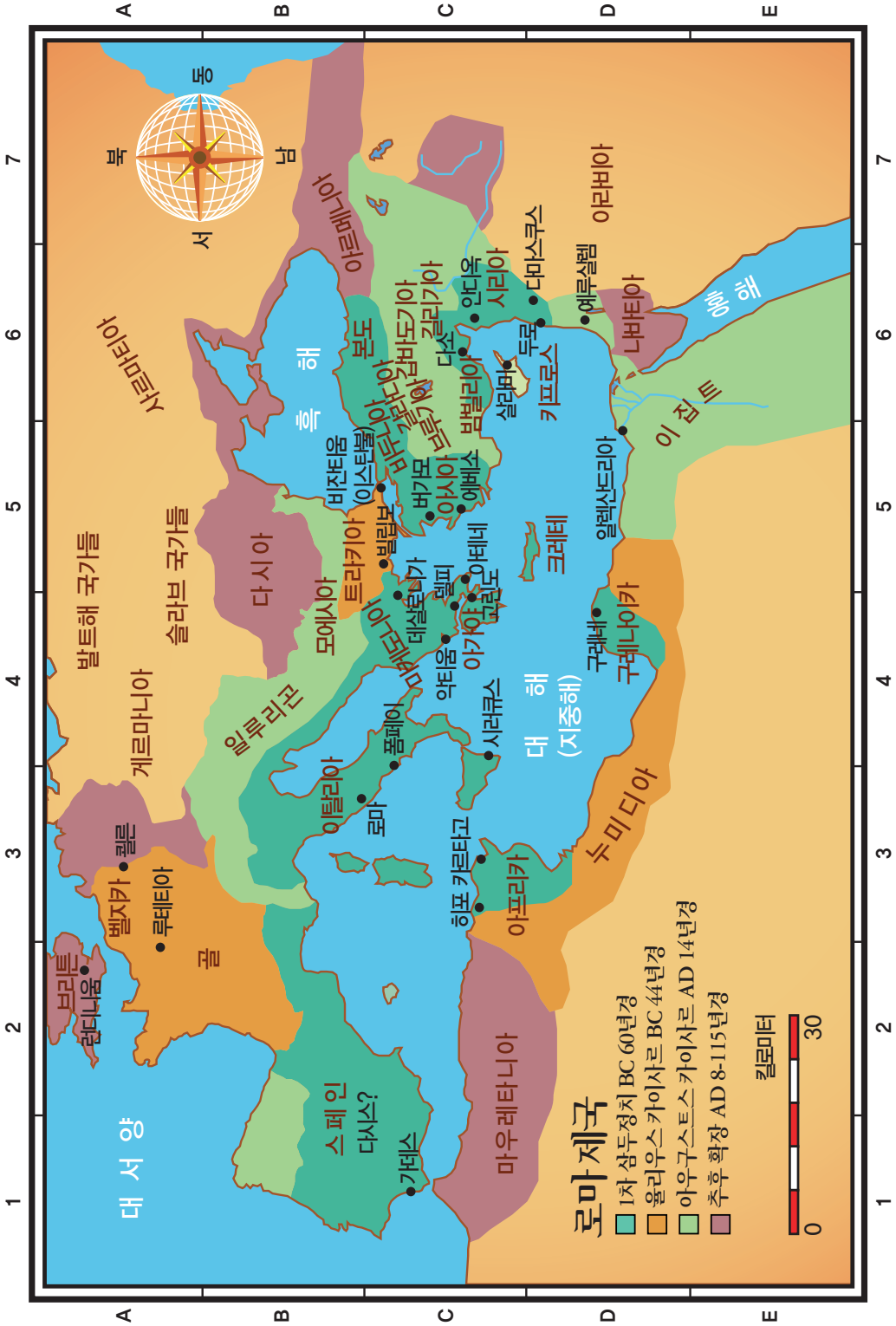
10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생활



아시리아 제국_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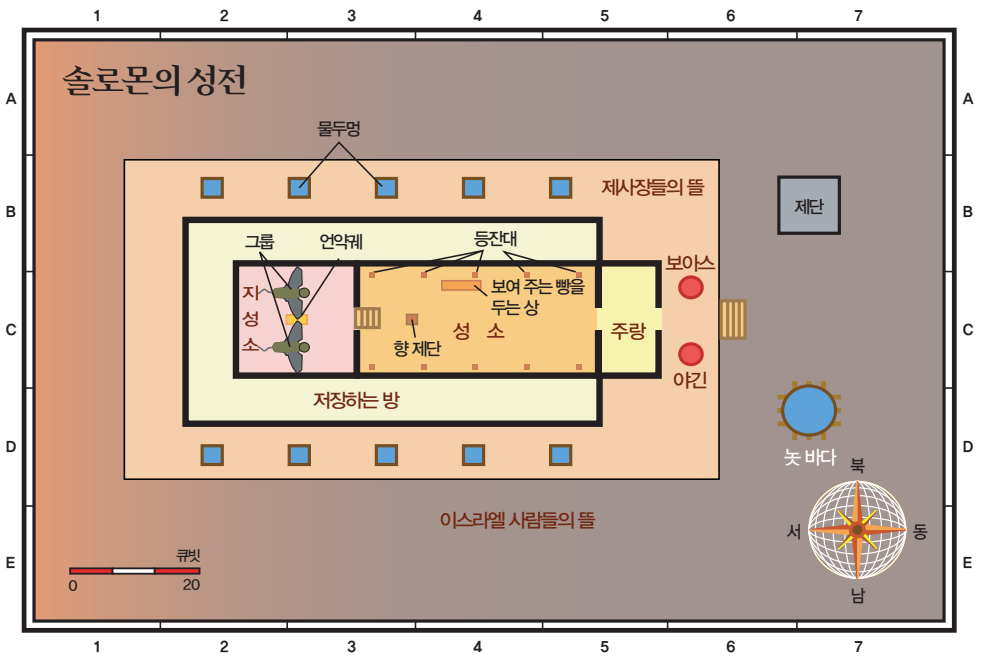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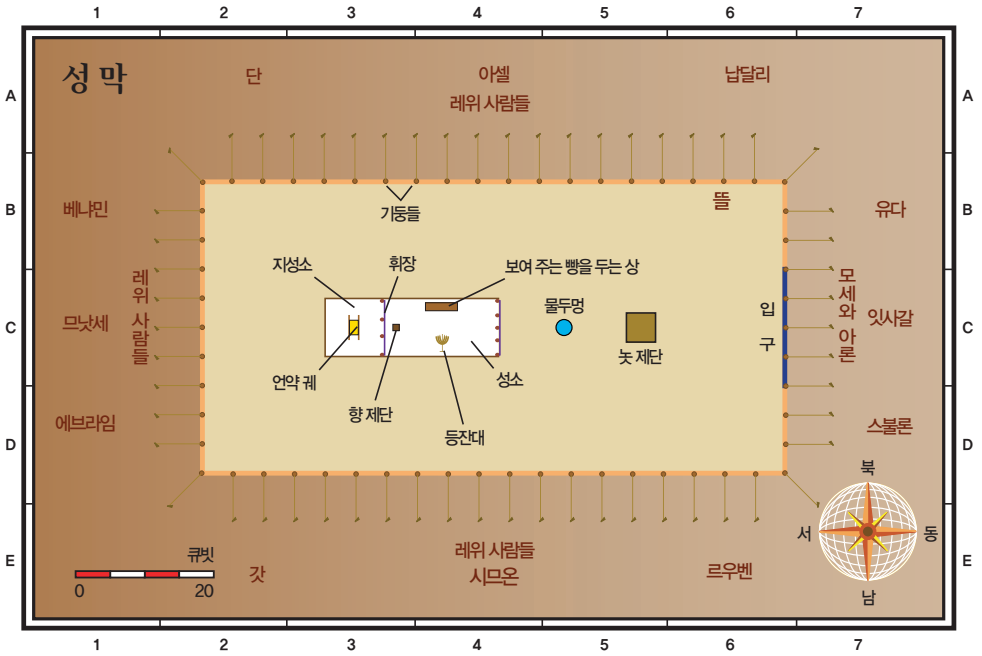
12. 바빌론 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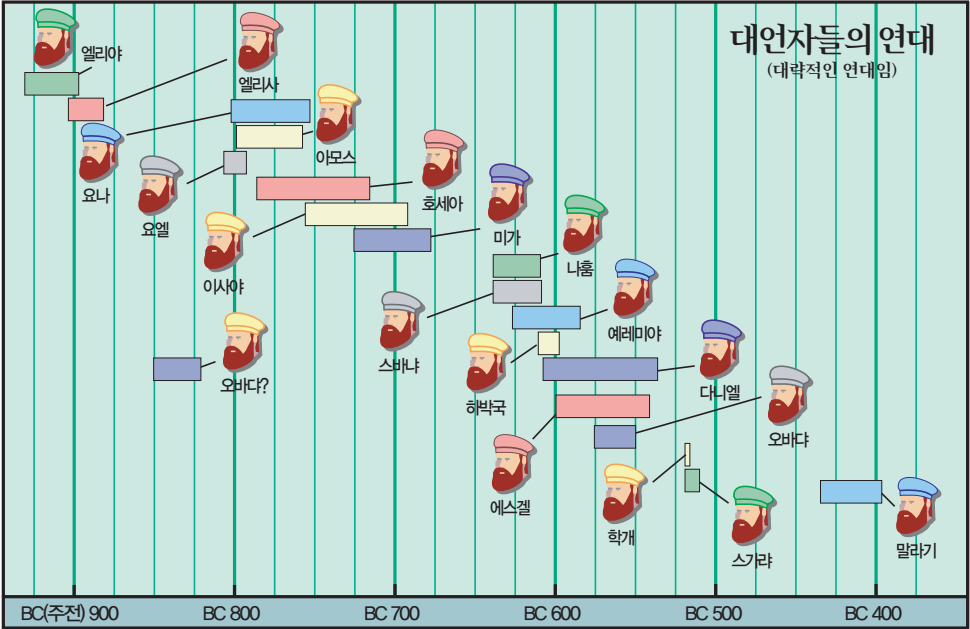
14 로마 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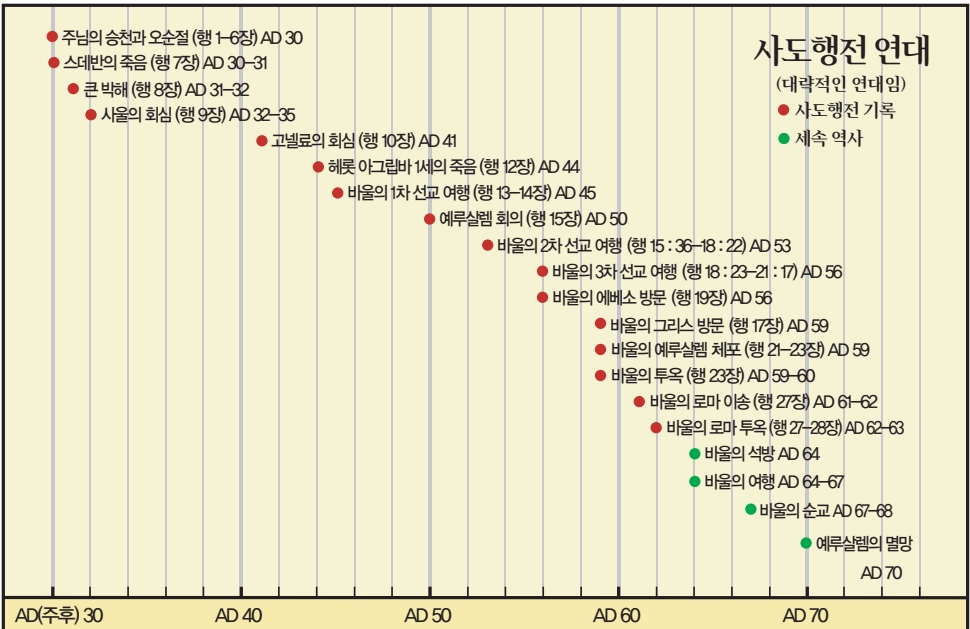
신약 시대의 땅_15



대언자들의 연대 (대략적인 연대임)



사도행전 연대 (대략적인 연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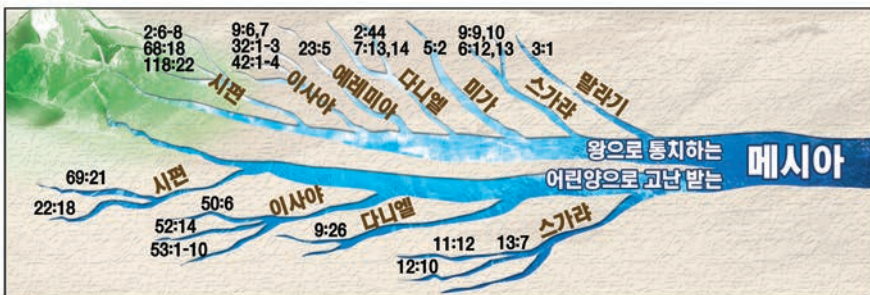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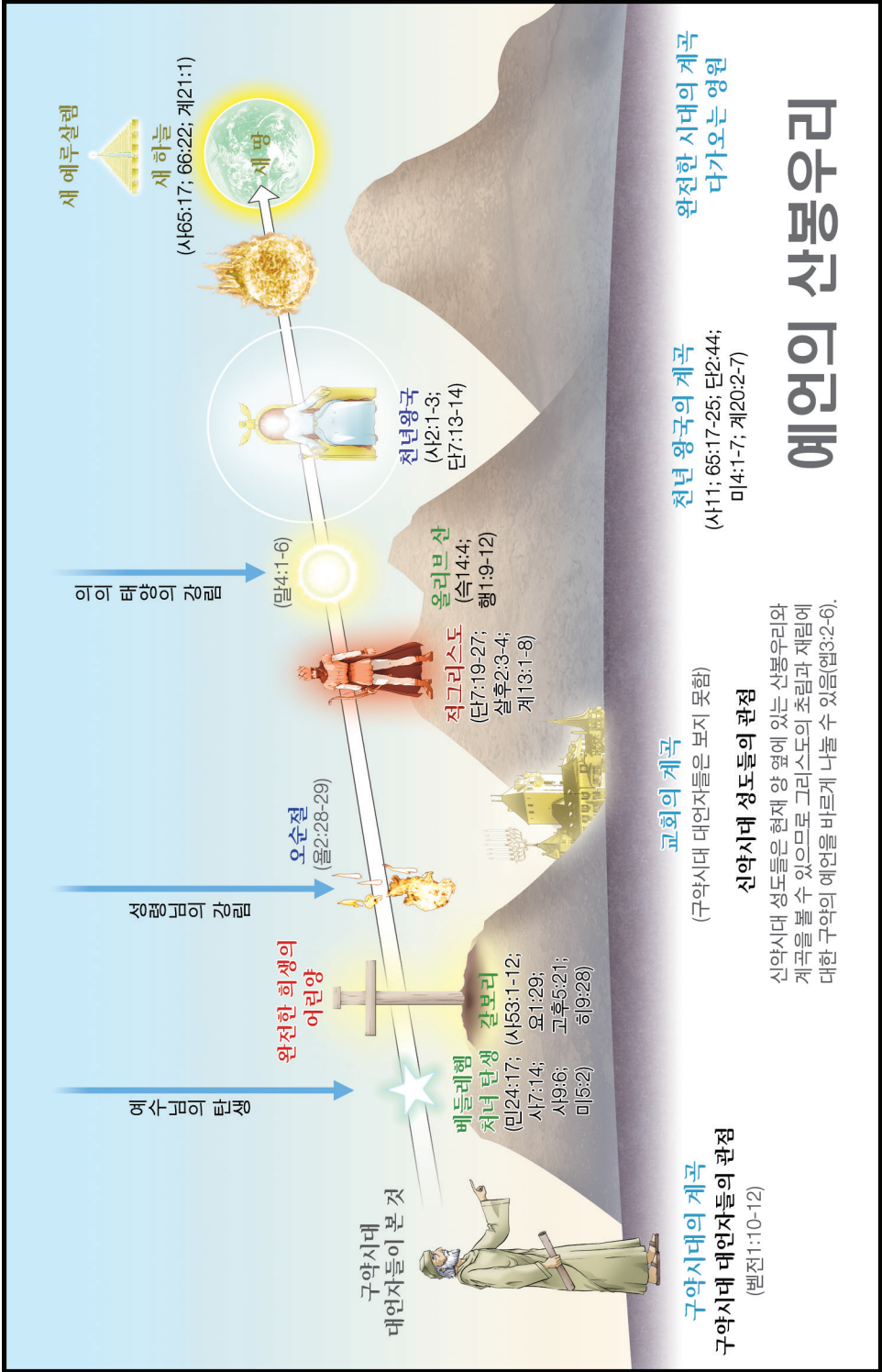
메시아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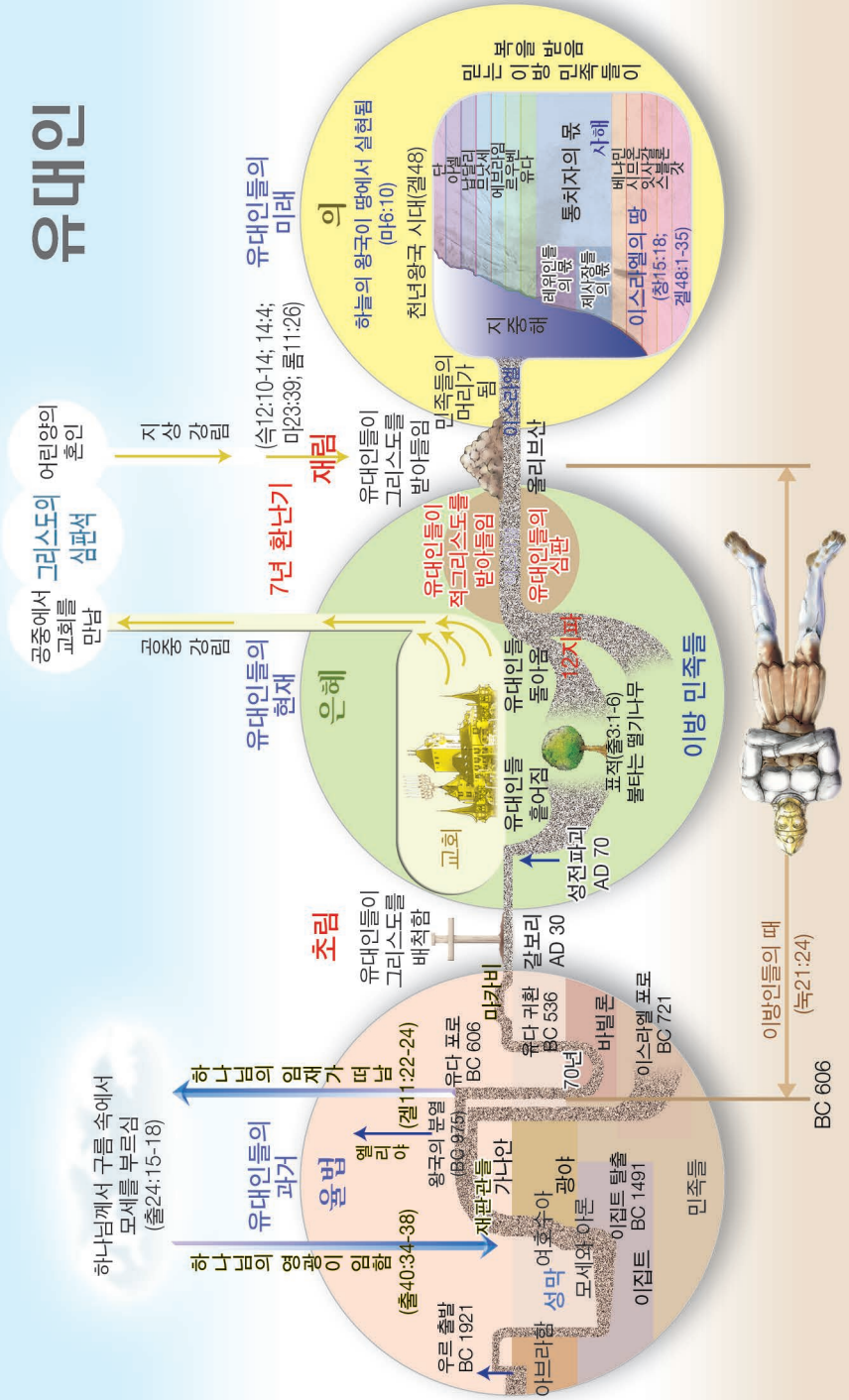
이 그림에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약속들이 들어 있다. 이것들은 히브리 역사의 어두운 밤의 여러 시대에 밝은 별로 나타났다. 창3:15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은 구약의 대언이 끝날 때까지 하나씩 하늘에 밝게 빛을 비추면서 모두 베들레헴의 별을 가리켰다.

메시아 예언의 두 줄기





유대인



교회와 왕국

왕이신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
(막16:19; 롬8:34; 히4:14-16)

왕이 왕국을 받음

왕이 교회를 만남
(살전4:14-18)

왕이신 그리스도의 심판석
(롬14:10; 고후5:10)

왕의 혼인
(계19:7-9)

왕의 승천

후거

권중장권

지상장권 환권

왕이 배척당함

왕국의 신포
침례자 요한
예수님
12제자

베들레헴 왕의 탄생

교회 시대 인류의 세 부류
교회, 이방인, 유대인
(고전11:32)

그리스도의 몸
다시 태어난 자들의 교회
(민은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 붙어짐

이방 민족들

유대인 돌아옴

워즈된 왕국

민족들 심판
(마25:31-46)

들로 된 왕국

양 민족들이 복을 받음
(마25:33-34; 눅8:23)

천년 왕국

교회가 왕과 함께 통치함
(계20:4-6)

유대인 왕국이 가까이 올

유대인 붙어짐

이방 민족들

유대인 돌아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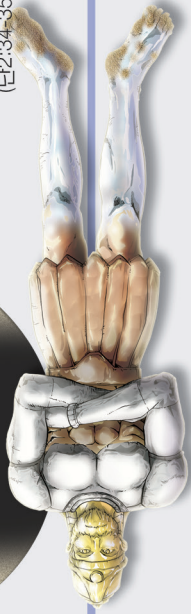
워즈된 왕국

민족들 심판
(마25:31-46)

들로 된 왕국

양 민족들이 복을 받음
(마25:33-34; 눅8:23)

이방인들의 때
(눅21:24)



종교와 복음



영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내세 혹은 영원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산다.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사유의 핵심은 사람의 영원성에 대한 것이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구원 시스템이 존재한다. 하나는 대부분의 세상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으로서 한 사람의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보다 많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철학, 선행, 고행, 예배, 문화, 회생, 자선 등을 통해 스스로의 행위를 가지고 영원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노력한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 가인의 길이요, 종교라고 부른다(유11).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 기간에 종교를 가르치는 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르며 크게 꾸짖으셨다(마3:7; 23:33).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서신서에서 3회나 종교라는 말을 쓰면서 종교 체제 하에서의 부정적인 것을 기술하였다(행26:5; 갈1:13-14). 종교는 결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며 오히려 지옥 불 속으로 그를 밀어 넣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롬3:23). 모든 창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서면 다 더러운 존재로 판명난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람 안에 있는 의는 모두 '더러운 누더기'라는 데 있다(사64:6). 그러므로 창조 세계의 외부로부터 오는 의 즉 사람을 지은 창조주께서 친히 베푸시는 의가 아니고는 그분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다. 즉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스스로 사람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려고 십자가에서 죄로 인한 형벌을 다 담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그 뒤에 부활의 소망이 되신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고전15:2-4; 20-23).

사람의 상태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렘13:23).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시51:5).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롬3:10)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사람은 태어남서부터 죄인이다. 그의 몸에는 첫 사람 아담의 피가 흐르므로 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즉 사람은 죄를 지으므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모태 신앙'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고 '모태 죄인'이라고 해야 맞는다. 사람 안에는 본성적으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롬7:18). 성경은 본성에 속한 사람 즉 자연인을 가리켜 '지각이 어두워진 사람'이라고 말한다(엡4:18). 그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일을 인식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전2:14).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엡2:3)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고 따라서 결코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없다(롬8:7-8). 그의 마음은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여 부패되어 있다(렘 17:9).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등이다(막7:21-22). 영적으로 볼 때 그는 죄와 범법으로 인해 죽은 존재이다(엡2:1).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자연인도 초자연적인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다(렘13:23). 이런 상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일이 구원의 첫걸음이다. 그와 같은 차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세상의 어떤 창조물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그를 지으신 분 곧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를 변화시켜 새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구원의 원리

펜이신

모든 물건에는 그것들을 만든 존재 즉 메이커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펜, 의자, 자동차, 책 등이 모두 메이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메이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을 판단하여 폐기 처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메이커가 있습니다. 물건도 메이커가 있는데 하물며 물건을 설계하는 고등 존재인 사람이 흠에서 그냥 생길 수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만든 메이커가 그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가 있습니다(행17:31; 히9:27). 이 같은 심판에서 부적격자로 드러난 사람은 메이커가 폐기시킵니다. 성경은 이 같은 메이커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폐기 처분되는 것을 '유황 불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계20:10).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내게 메이커가 있는가, 없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인

사람과 물건의 차이는 사람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적격자로 판정내리는 근거가 죄라고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죄란 '목표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며 사람이 자신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 의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분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롬3:23). 첫 사람 아담에게서 시작된 이 죄라는 독은 사람의 뒷줄을 타고 전 인류에게 퍼졌습니다(창5:3; 롬3:10).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따라 그 이후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인 사망이 왔고(롬6:23)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옥 불속에서 자발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티끌만큼의 죄도 차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합1:13).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과연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계 획

설사 펜 공장에서 나오는 펜이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해도 자기 자신이나 혹은 그 옆의 펜이 그 펜을 고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의 병은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 즉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마리아, 마더 테레사 등이 고칠 수 없습니다. 펜을 설계한 메이커가 펜을 고칠 수 있듯이 사람의 설계자인 하나님 즉 사람과 처원이 다른 외부의 존재만이 사람의 죄의 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행4:12).

바리새

사람의 죄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 탄생을 통해 죄 없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어 단 한 번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 시키셨습니다(마1:23; 고후5:21; 히9:26).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지옥 불의 심판을 다 담당한 뒤 사자들이 무서워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몸으로 부활하셔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가나 햇빛같이 사람에게 필수불가결한 모든 것을 거저 주십니다. 이런 것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 역시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집니다(골5:16).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사역을 맡기만 하면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습니다(엡2:8,9).

확신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그 사람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곧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말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창조 주이신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진로임을 믿습니다(대오14:6).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롬6:23).

초성

인생은 마치 달리는 기차역을 향해 달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단 몇 시간을 아끼려고 열차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역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이라는 무궁한 시간을 아끼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히3:13). 나이와 직업과 성별과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오늘 그 시간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방법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벧전1:23).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나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값 없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 나오기 바랍니다!

대신 속죄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하니라(요1:29).

여호와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신다(합1:13). 그러므로 누구라도 죄가 있는 존재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다. 성경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의 수치를 가리도록 옷을 만들어 주신 이후로(창3:21)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 없는 희생물을 대신 죽이고 피를 흘려서 속죄를 이루어야만 함을 보여 준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점을 시정각 교육으로 잘 보여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는 소나 양 등의 짐승을 끌고 성막 앞의 제사장에게로 간다(레1:2-9).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칼로 직접 짐승의 목을 찌른다. 그가 칼을 양의 목에 꽂는 순간 양은 비명을 지르고 피가 몸에서 튀어 나온다. 이로써 죄인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피를 흘리는 희생물이 있어야만 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이 제물을 여러 조각 내서 번제 헌물 제단에 던져 태워야 한다. 이것을 통해 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뜨거운 지옥 불의 정죄가 있어서 불의 고통을 받아야 함을 깨닫는다. 이런 일은 또 유월절(출12)과 속죄일(레23:27-32)에도 이루어져서 사람의 죽음을 막기 위해 흠 없는 어린양이나 소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짐승의 희생은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잠시 덮는 역할을 하며 예표의 기능을 했을 뿐이다(히 10:4).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창조 세계의 외부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희생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지옥의 고통을 다 담당해서 단 한 번에 영원한 대신 속죄를 이루셨다(히9:12). 구약시대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있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마27:51; 히6:19-20). 그분께서 단 한 번에 세상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제거하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희생물이나 제사장이 필요 없다(히10:18).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היתה תהו ובהו וחשך על
תהום ורוח אלהים כנחת

히브리어 구약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함

**원래의 기록
(자필원본)**

BIBLOS γενέσεως
'Ιησου χριστου, υιου
Δαβιδ, υιου 'Αβρααμ.
'Αβρααμ ἐγέννησεν

그리스어 신약성경



**히브리어/그리스어 전통본문
모든 사본 중 가장 신실한 것들**

번역본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성경**

**번역자들
오직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

**번역기술
단어 대 단어의
'축자 번역'
'동적 일치 배제'**

**종교개혁의 정신과
함께 중요 교리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
위가 완전히 보존됨**

킹제임스 성경의 선구자들

위클리프 성경	1382
틴데일 성경	1525
커버데일 성경	1535
매튜 성경	1537
그레이트 성경	1539
제네바 성경	1560

**1611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